

게 未進의 문화이고, 서양문화는 既進의 문화”³³⁾라고 양수명은 결론짓는다. 나아가 그는 동양문화가 未進의 문화로 전락한 이유를 철학의 부재, 혹은 철학의 낙후성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동방문화와 철학은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 변하지 않았다. 수 천년 전의 문화와 철학이 여전히 수 천년 후의 문화와 철학으로 존속되고 있다.”³⁴⁾

양수명이 보기에 東方, 中國은 낙후된 문화와 철학으로 인해 서양과 같은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서양을 진보된 문화이고 동양(중국)은 낙후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동양은 전폭적으로 서양을 배우고 서양을 수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양수명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 중국인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대한 입장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입장을 단순히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서구중심적 우월주의를 중국 지식인이 받아들인 후에 그 서양적 편견을 중국식으로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당시는 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절박함이 그 요청 속에 깃들여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서양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 및 중국이 전폭적인 서양화를 단행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서 양수명은 『신청년』 지식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진독수를 비롯한 전통부정론자들이 인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수명 역시 서양문화의 우수성의 소재를 ‘과학적 방법’(科學的方法)과 ‘개성 신장’(個性申展) 혹은 ‘사회성 발달’(社會性發達)에서 찾고, 전자는 학술에 있어 특별한 방법적 정신(學術上特別的精神)이고 후자는 사회 구성에 있어 특별한 정신(社會上特別的精神)이라고 평가한다.³⁵⁾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서양문화의 장점, 서구문화의 수용여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신청년』 지식인과 梁漱溟 사이에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입장 차이는 서구문화를 수용한 다음 전반적 서구화가 진행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서 발생한다. 당시 서양사회는 자본

33) 같은 책, p. 340.

34) 같은 책, p. 340.

35) 같은 책, p. 349.

주의의 심각한 한계, 근대문화의 한계를 露呈하는 여러 징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梁啓超는 유럽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저술한 『구유영심록』에서 근대문화가 초래한 종말론적 상황을 묘사하면서, 서구적 근대의 파탄을 경고한다. 양수명은 양계초의 글을 심각하게 읽었다.³⁶⁾ 그리고 양수명은 서구 근대의 미래에 관한 비판적 예측을 토대로 그 병폐에 대한 비판의식을 동시에 가지기 시작했다. 그 점에서 『신청년』 지식인들은 서구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양계초의 글을 읽으면서 양수명은 서구문명의 가치관에 내재한 긍정적인 국면과 부정적인 국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인식은 결국 양수명으로 하여금, 서구문화와 중국문화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비교문화론적 틀을 구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양수명은 문명을 개괄해 보면 세 가지 방향(路向)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서양문화의 방향이고, 둘은 중국문화의 방향, 셋은 인도문화의 방향이다.³⁷⁾ 서양문화의 특징은 진취적(向前要求)인데서 찾을 수 있다. 그 문화는 의욕, 분투적이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국문화의 특징은 안분자족하는 소극성을 가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문화는 분투정신이 부족하지만, 조화와 내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인도문화는 지나친 소극성으로 인해 세상에서 물러나는 부정적 태도를 특징으로 삼는다.

먼저 양수명은 인도문화의 방향은 중국이 당장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³⁸⁾ 그렇다면 작금의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둘로 압축된다. 그 중에서도 당시의 중국이 처한 국면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급선무는 제1의 방향, 즉 서양문화의 방향을 취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서양의 진취적이고 분투적인 문화를 선택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 학습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다른 방향을 취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

36) Guy Allito, *The Last Confucian: Liang Shu-ming and the Chinese Dilemma of Modernity*,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p. 75-81. 참조.

37) 양수명, 『동서문화』, 『양수명전집』, 제1권, pp. 381-383.

38) 『양수명전집』 제1권, p. 523. “要排斥印度的態度, 絲毫不能容留.”

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요청이다.

양수명은 전통비판론자, 西化派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문명적 측면, 기계, 기물, 제도, 학술 등등 모든 측면에서 서양에 뒤떨어진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조화를 추구하고 안분자족을 가르치는 중국의 문화방향은 인생태도에 있어서 반드시 낙후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³⁹⁾ 그의 주장은 서양은 물질방면에서 우위에 있고, 동양은 정신방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중체서용론의 이분법과 닮은 점이 없지 않지만, 그것과는 분명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그는 인생태도에는 先進과 後進, 既進과 未進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상대적 다원적 가치관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서양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미래에는 중국적 문화방향이 부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흥은 인생태도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다. 물질, 기술, 제도, 학술 방면은 여전히 서양문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양수명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양 문화를 구성하는 두 가지 정신(과학과 민주)은 완전하게 옳다. 따라서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서양문화의 ‘전면적 수용’(全般承受)이라고 부른다. 그 두 정신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는 일이 오늘날 우리의 급선무이다. 만일 그 두 가지가 결여되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인격에 대해 말할 수 없고, 학술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⁴⁰⁾ 이어서 그는 비합리주의를 주장한 베르그송이 아니라 러셀과 듀이가 중국에 와서 학술 강연을 하고, 중국 지식인들에 자극을 준 것이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말한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수명이 현재의 과제로서 서방화와 미래적 요구로서 동방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미래에 있어 동방적 정신이 중국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학술, 기술, 제도의 복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39) 『양수명전집』 제1권, p. 523. “서양문화는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그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비평적 태도로 중국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인생태도를 재평가해서 이용해야 한다.”(對於西方文化是全般承受, 而根本改過. …批評的把中國原來態度重新拿出來.)

40) 『양수명전집』 제1권, pp. 532-533.

는 점이다. 양수명은 인생의 태도, 인생의 이상으로서 공자사상의 정신, 공자의 인생태도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이 정치, 경제, 학술의 유교복고 내지는 전통복고를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중국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한다.⁴¹⁾

5. 결 론 : 전통계승의 의미

오늘날, 근대화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확산되고, 근대가 서구적 보편성에 기반한 서구화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인식, 서구중심주의를 벗어나 다원적 가치를 담지하는 새로운 의미의 근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양수명의 비판적 전통계승론에 담긴 다원주의적 태도, 그리고 중국문화의 정신을 서구문화에 대한 비판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의 입장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여기서 양수명의 비판적 계승론을 살펴본 이유는, 현대신유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전통회귀적 관점을 옹호하거나 그의 '근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1920-30년대 중국에서 발생했던 철저한 전통비판과 비판적 계승론을 살펴봄으로서, 그 당시 지각 있는 중국지식인들이 선택했던 길이 단순한 유교전통 옹호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나아가 전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근대를 지향하는 양심 있는 중국의 지식인 나아가 중국민중의 염원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신청년』 지식인들의 전통비판은 서구적 근대화를 유일하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인정함으로써, 그 방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모습을 비판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근대문명에 대한 그들의 지나친 낙관주의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비판론에 담긴 진지한 가치가 희석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도 사실이다. 그 당시에 이미 그들의

41) 『양수명전집』 제1권, pp. 537-539.

낙관주의를 지적하는 언설들은 도처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이 컸던 것만큼이나 그들의 낙관주의에 대한 공격적 언설 역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서구적 근대화 내지 자본주의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모습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서구적 방향은 무조건 잘못되었다거나,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서구적 근대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통의 사상과 문화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등의 전통회귀적 결론을 도출하는 인사들의 발언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반동적 언설의 대표적인 예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을 시찰하고 돌아 온 양계초가 발표한, 서구 근대문화의 부정적 모습을 고발하는 보고서 『歐游心影錄』이었다.

양수명은 『동서문화』를 저술하는 시점에서 양계초의 서구문명 종말론의 영향을 얼마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수명이 곧바로 서구 문화의 방향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그는 전통으로 회귀함으로써 중국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전통이 결여하고 있는 과학과 민주의 정신을 지닌 서구화의 길을 **철저하게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중국의 미래는 서구화를 포기함으로써가 아니라, 서구화를 완성함으로써만 약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서구화에 내재한 문제, 작금의 서양문명이 드러내 보여주는 부정적 모습은 다른 차원에서 다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수명은 중국이 서구적 가치, 민주와 과학 나아가 그것이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철저히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점에서 그는 『신청년』의 전통 비판론에 완전히 동의한다. 하지만, 그 서양문화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문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의 부정적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때에 필요한 것이 공자가 제시했던 ‘**剛의 태도**’라고 그는 말한다.⁴²⁾

공자가 보여준 ‘**剛의 태도**’란 강직함으로 자기의 내면적 울분을 지키는 것이다. 양수명이 말하는 **剛**은 진보와 경쟁에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인간다

42) 『양수명전집』, 제1권, pp. 537-538.

움의 뿌리를 상실하는 비인간화에 맞서는 강함, 울곧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울곧음을 뒷받침하는 근본 정신은 仁과 義 곧 사랑과 공정이다. 私的 개인의 작은 한 몸에만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힘과 세속의 타락에 항거하는 우환적 공공성이 유교적 참 정신이다. 공자사상에 담긴 그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적 자원으로 존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에서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정신적 자원을 발견하는 일이 서양은 기술문명, 동양은 정신문명 하는 식의 오리엔탈리즘적 동서문화 이분법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년』 지식인들은 서구적 근대화의 한계에 대해 날카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梁漱溟은 서구문명의 한계를 교정하는 정신적 자원으로 중국문명의 가치, 인생태도를 재해석해 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양수명은 전통, 중국문화를 서구적 근대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통의 정신이 서방문화의 대안이 아니라 서방문화에 대한 비판적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그는 서양 근대문명의 합리주의와 민주적 시민정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다음, 그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현실을 교정 보완하여 서구적 근대를 완성하는 비판적 정신으로서 중국문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전통의 계승은 많은 경우, 정치적 보수주의와 결합하여, 실제로 그 전통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순수성을 배반하는 정치적 조작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경우에 전통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조작되는 것이다. 그 조작에 의한 재발견은 전통의 가능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대의 이념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발견하는 것과는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조작에 의해 전통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그 전통을 빌미로 권력의 확대를 꿈꾸는 사람들의 정치적 요구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경험한 유신 이데올로기와 전통의 결합, 최근 중국에서 진행 중인 포스트-둥소평주의 내지 포스트-공산당독재의 시기를 준비하는 유교의 강화 및 유교 재평가의 열풍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필자는 전통계승이 전통의 파편적 되새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통의 체계

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체계의 지향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이 축적된 후에, 전통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재창조의 자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전통계승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것이다.

그런 체계화와 객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전통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거나 현대적 창조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입각한 전통계승의 시도는 더 이상 학문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창조를 일구어 내는 역량으로 발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존중되고 계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전통의 어떤 특정한 요소를 그 요소가 형성되고 의미를 획득하는 전체 체계와 분리시켜, 다시 말해 전통의 본래 맥락과 분리시켜, 그것이 현대적 요청, 현대적 삶의 이런저런 측면과 상통하는 바가 있거나 이런저런 요소와 다르지 않다는 식의 논리로 전통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태도는, 표면상 현대와 전통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해석학적 지평의 구성을 지향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위장된 근본주의(fundamentalism)⁴³⁾라고 할 수 있다. 위장된 근본주의는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문화적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의 한 양상이라고 비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다원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이용하는 회귀적 보수주의의 다른 모습에 불과한 것이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3) 브라이언 터너Bryan Turner는 *Orientalism, Postmodernism and Globalism*이라는 책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예로 들면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 글로벌리즘의 확대와 함께 등장하는 이러한 민족적 특성을 강조하는 회귀적 전통주의가 왜곡된 자기 긍정의 표현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과학적 방법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토착적 지식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지역적 특색을 가진 과학의 가능성을 추구하거나 하는 움직임들이 그러한 근본주의의 한 양상일 수 있는 것이다. 터너가 지적하듯이 세계화와 지역주의는 동시에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그에 대한 반동으로 지역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도 강해지며, 그 지역주의가 전통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나설 때 근본주의로 나아갈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Bryan Turner, *Orientalism, Postmodernism and Globalism*, Routledge,1994,pp.8-12참조.

《ABSTRACT》

The Critique of Confucianism and the Reappraisal of Tradition in Modern China

Keum Jang-tae and Lee Yong-ju

In this article we try to analyse the anti-confucian discours in the period of New culture movement 新文化運動 of modern China. The anti-confucian intellectuals of 'New Youth 新青年' Review believed that Confucianism is a enemy to be defeated to introduce modern Western culture in China. They firmly believed that modern Western culture is the only right way to overcome Chinese culture's stalemate. Naturally, however, there existed reversals from the camp of traditional conservatists.

Yang Shu-ming 梁漱溟,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raditionalists camp, assented to the criticism raised by anti-traditionalists. Even though he was somewhat critical to the anti-traditionalist's criticism, he saw the truth in their criticism to traditional Chinese way of life. In this respect Yang's conservatism shares much to anti-traditionalism of the period. Lastly, we will try to consider the meaning of re-evaluation of tradition through examining the debates on anti-traditionalism of modern period.